



Universal Care

선교회지 DEC 2010 '겨울' 호 통권 6호

詩 “이런 선교사이게 하소서”
‘메콩강 소년’ 정도연 선교사

Column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적 삶으로 다시 일어나라!
/ 황필남 선교사

간증문
“저의 이름은 루슬란입니다.”
“생의 첫 아웃리치”

My Vision

나의 꿈 / 이은숙

선교논단 - 中 國

“중국을 주님께로!” / 송성규 목사

“중국에서 진짜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 강다니엘 선교사

2010.12.07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찬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전문인 선교회입니다

발행인 / 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발행일 : 2010.12.07

표지설명



20년간, 배울 수 없고, 먹을 것 없으며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부단히 심었던, 태국 메짠 공동체의 신축된 화야실 교회 전경. 이 아름다운 풍광 가운데 감추어진 사역자들의 눈물과 땀의 세월들이 새삼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Contents

01 *Prologue*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정진호

02 詩 이런 선교사이게 하소서
/정도연 선교사

04 Column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적 삶으로 다시 일어나라!
/ 황필남 선교사

07 선교논단 – 中國

I. "중국을 주님께로!" / 송성규 목사

II. "중국에서 진짜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 강다니엘 선교사

17 My Vision "나의 꿈" /이은숙

19 간증문 "저의 이름은 루슬란입니다." /루슬란
"생의 첫 아웃리치"
-전북 고창을 다녀와서-/홍지혜

24 선교지에서 I, II, III

-선교지에서의 첫번째 유아세례식을 가지면서.
-러시아 김우섭 목사
-밀알의 비전 / 남아공 배성호 목사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태화 목사

33 선교사 기도제목

37 Universal Care ?

Prologue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정진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주님과 함께 했던 2010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동안 Universal Care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섬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북한 땅의 회복을 바라보며 참여했던 2월 달의 철원 땅, 광활한 몽골 대륙에 교회 개척을 목표로 5월에 밟았던 올란바토르와 다른 항의 땅, 이화 초등학교와 월드와이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역했던 8월 더운 여름날의 파주 장파리의 땅, 그리고, 새벽5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내려갔던 11월달의 전북 고창 땅, 이 모든 곳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산지’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황필남 선교사님이 섬기는 몽골 땅, 김우섭 선교사님이 계시는 돈강이 흐르는 러시아 로스톱 나 다누, 배성호 선교사님이 고군분투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한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건강을 가졌지만, 자신의 온 몸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송찬승 선교사님의 캄보디아도 올 한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산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여호수아의 앞에 서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을 자기의 뿐짓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장 강한 장대한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지금”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5세의 자신의 노구에 집중하지 않고, 여호와의 강한 팔에 그 시선을 집중하였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2011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Universal Care”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계획에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산지를 지금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수 14 :12)

詩

이런 선교사이게 하소서

전도자이기에 앞서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 앞에 서기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앞에 먼저 서게 하소서,

사랑을 가르치기 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를 설명하기보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평화를 노래하기 전 평안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시고
기뻐하라 말하기 전 진정 주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하라 설교하기 전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기 전 기도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끄는 자가 되지 않고 밀어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쉬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닌
신실하신 주의 약속 앞에 오래 참는 자 되게 하시고
문화의 정복자가 아닌
문화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모든 문화를 회복케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젊음의 열정 보다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되새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약함을 들어낼 줄 아는 겸손한자 이게 하소서.

방방곡곡을 누비는 팔방미인이기보다는
맡겨진 한 가지 일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유명한 선교사가 되기보다
썩어져 가는 밀알이 됨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소서.

다듬어진 쉬운 길 가기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찾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남의 터 위에 세운 많은 것 보다는
스스로 땀 흘려 얻은 작은 열매에서 희망을 찾는 자 되게 하소서.



‘메콩강 소년’

정도연 선교사 /시인

20년간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메콩강을 지키며
메짠 공동체를 섬기고 있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 보다는
현지 영혼과의 만남을 더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명자에게 하소서

많은 후원자를 바라기보다
사명감 있는 기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편지는 사역을 보고하는 의례적인 보고서가 아닌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더욱 충만케 할 수 있는 바울 서신에게 하소서.

주여 !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왔사오니
저들의 끝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아멘-



Column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적 삶으로 다시 일어나라!

황필남 목사

몽골 선교사

유니버설 케어 상임고문



한국에는 크고(1,000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작은(1~50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단체가 200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로 간 1991 년을 생각하면 그때는 몇 개되지 않은 소수의 선교 단체가 있었을 뿐입니다. 놀랄만한 한국 선교의 성장입니다. Universal Care 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09 년 가을에 산고를 겪으며 출산했다면 2010 년은 성장의 과정을 위한 용틀임을 했고 2011 년은 하늘을 비용하기 위한 작은 새끼 독수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금년 조국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수십만대 팔아서 벌 돈을 아프리카의 원전수주를 통해 한꺼번에 벌 기반을 조성했었고, 세계적으로 G20 을 개최하며 국제적인 수준을 끌어 올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런가하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침공을 받아 상처난 아픔의 현장을 갖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6~8)

의사 누가는 급변하는 중동의 정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행 1:3) 예수님에 대해 집중 조명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위에 살며 우리의 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국가와 혜롯왕에 대한 고민과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정치와 웃시아왕에 대한 고민, 애굽 시대에는 바로왕과 애굽 정치판속에서 신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앞에 고민하며 소리치며 부르짖었습니다. 핵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날뛰는 북한이 변수가 되었고 조국 한국의 앞날은 한 치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은 경제를 잘 극복해 놓고도 불안한 국방의 문제로 고민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위에 살기 때문에 작은 김치파동 하나에도 쩔쩔매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역사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며 사는 자들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보다 보좌에 앉으신 하늘의 왕께 소망과 비전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망연자실하였지만 전두환 대통령처럼 백담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담 후세인 대통령처럼 겁을 집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보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시키시고 깨우려 파송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국 현장의 고민보다 영적 조국인 천상의 왕이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사 6:1-3) 우리는 보좌에 앉아 천만 천사들의 섬길을 받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으로부터 소망과 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2010년 겨울을 보내며 2011년은 선교할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의 꽃을 피웁시다.

현실문제로 고민하고 영적인 안목이 없이 소경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앞에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거나 헛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조용히 주님앞에 무릎꿇고 2011년을 꺼진 희망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불은 죄악을 불태우는 불이요, 소망을 주는 불이며, 세계와 민족의 문제를 불태우기 위한 하늘의 불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길이며 후회하지 않는 불이며 영원한 불입니다. “그때에 스랍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주여! 천사를 보내 불붙은 숯의 불씨를 네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씨를 주옵소서! 세상을
불붙일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민족의 깊은 좌절과 고민의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부터 백골이 될 때까지
무엇하며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한 확실한
사명의 뱃줄을 굳게 잡았습니다.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할찌라도 제가 가야할 길은
하나님앞에서의 “나의 선교 사명”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사
6:8~9)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유니버설 케어
가족이 된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깨어져 가는 배편속에서도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위해 쓰셨던
것처럼, 늙어져가고, 쇠퇴해져 가고,
소용돌이치는 물살속에서도, 거칠고 투박한
세파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강철같은 **선교의 연장**
(Instrument of Mission)이 되게 하소서!

선교논단 I

중국을 주님께로 !

송성규 목사
일산명성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을 보면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에는 나라나 민족을 초월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세상역사는 구속사이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마지막은 주님 재림으로 끝이 난다고 볼 수 있다. (마 24:14)

그런 의미에서 중국 선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 중국의 선교의 중요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네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으로 인해 또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족을 포함하여 소수민족 56개민족과 408종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다양한 민족들 때문에 이슬람선교와 북한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선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인접한 탓에 역사적으로 항상 불가분리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늘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문화 또한 중화문명권의 주변문화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사상적 측면에서의 유교문화, 문자 언어생활에서의 한자문화, 정치체제에서의 동양적 전제군주제는 물론이고, 생활양식과 음식문화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 문화적 동질성은 양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많은 공통점을 갖게 하였다.

이처럼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양국의 유대관계는 금세기에 이르러 정치이념과 체제의 상반된 입장으로 적대관계로 돌변하였으나,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다시금 동반자적 관계로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중국선교를 더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필자가 지금하고 있는 한족과 조선족들의 지도자 제자훈련을 소개코자한다

2. 중국의 기독교 역사

중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635년에 종동으로부터 들어온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경교(景教)라고 불리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그후 고위층을 중심으로 210년간 전파되다가 845년에 있었던 당(唐) 무종(武宗)의 반불교도 박해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 후 약 400년 후 원(元) 왕조 시대에 가톨릭의 프란체스코회 선교사들이 당시 수도인 캄발력(북경)에 파송되었으나 민중 속에 뿐 리내리지는 못했다. 그리고 후에 명(明)나라 말기에 와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활동하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테오리치 신부였다. 또한 청(淸) 왕조 때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동이 번성하였으나 이른바 '전례논쟁'으로 인해 1724년 황제의 칙령으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807년에 런던 선교회의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와서 중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등 1834년 그가 죽을 때 까지 헌신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조인된 남경 조약 이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도 이 때 들어와 중국 내지 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한 반발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1949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는 다시 한 번 수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

3. 한국교회 중국선교의 통향

최근 한국선교정보연구센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의 수효는 129명으로, 필리핀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단체에 적을 두고 공식 파견된 수치일 뿐, 유학생·상사·주재원·사업가 등의 신분으로 진출한 평신도로서 개교회가 자격을 인정한 자비량 선교사들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의 수효는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사역 또한 초기 단계의 개인전도나 성경공부, 처소교회 후원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교회건축·의료선교·사회복지선교·교육선교·문화선교·산업선교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가 이처럼 단기간에 걸쳐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최근 수년간 양국 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인적자원의 진출이 급증한데다가, 역사적인 문화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어 쉽게 동화되어지며 현지의 조선족들을 통하여 언어의 장애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4. 필자가 하고 있는 중국선교

가. 중국 북방 사역

요년성-심양, 길림성- 매화구, 연길, 장춘, 훈춘에서의 제자훈련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7년째 매달 교수(한국목사) 2명이 들어가 한족과 조선족 지도자들을 성경의 핵심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특히 매화구에서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인수해 선교 센터로 활용 신학생들과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동북삼성 한족 지도자들

(길림성 매화구 신학교)

심양의 문토마스선교사와 연길의 조선족 목사인 김00목사, 훈춘에는 강00목사가 총책이다. 한족은 중국어로된 교재로, 조선족은 한국어로 반드시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



동북삼성 조선족 지도자들

(길림성 연길 신학교)

나. 중국 남방사역

운남성- 곤명, 호북성-남경, 무한 등에서 제자

훈련중이다

남방사역은 국제 KDM 선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곳도 운남성에서는 이갈렙선교사가, 호북성에서는 정여호수아선교사가 총책이다. 필자가 남방사역에 관계된 것은 3년째이다. 이곳도 교수들이 매월 들어가 강의를 하고 있다. 이곳도 역시 북방에서 만든 교재를 가지고 교육한다. 중국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 머지않아 계시록 2장 5절에 나오는 그 촛대와 축복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말이다. 특히 운남성 주위에는 서장(불교)과 신강(이슬람)이 버티고 있다. 이 운남성에서 훈련된 지도자들이 서장(티벳)과 신강(우루무치)을 뚫고 이슬람의 벽을 헐어버릴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서방으로 향하던 기독교 복음은 계속 서방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주님의 그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남방 곤명의 신학생들 (운남성 묘족 신학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남방 곤명의 따무창 교회의 성가대

결론적으로 선교가 지상과제인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선교시장이며 지난날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통로였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그렇지만 선교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선교사들마다 다르게 활동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국제 KDM 선교회는 1.성경을 통한 하나님나라 운동 3가지 (천국, 구원계획, 천국인의 삶-문화) 2.천국의 이정표 3. 자아가 죽고 영이 사는 원리 등이 주강의 내용이며 건물이나 숫자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즉 사람을 모아 제자 훈련하여 중국교회 지도자를 양성 그리고 중국교회를 세워나가며 이것을 발판으로 이슬람선교와 북한선교를 연계하는 것이 주목적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케어 선교회는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선교에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강의중인 필자와 통역을 해주시는 윤전도사

선교논단 Ⅱ

중국에서 진짜를 잘 구별 해야 합니다

강다니엘 선교사
미국 킹데이빗대학교 C국담당자
HIS 선교회 대표
PN4N(북한사랑)미동부담당



5년 전 중국 지방신문에 논평된 한 그림내용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모습을 만화로 그린 것인데 물건을 산 사람은 물건을 자세히 살피고 있고 제품을 판 상인은 돈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가짜 우유를 판매하여 어린아이들이 큰 곤욕을 당해 정부에서 대대적인 방안들을 내어 놓았지만 국민들의 마음까지 위로 해 줄 수는 없었고 대부분은 중국인들은 당연한 일로 쉽게 잊고는 합니다. 한국의 마티즈가 중국에서 QQ이름으로 판매할 당시 한국사람의 눈은 기술 협력을 한 줄 알았고 중국인들은 그들의 기술이 그만큼 발전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카피된 제품이었고 GM대우에서 상하이 GM을 통하여 승소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나라 중국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2001년 중국 연변지역에 처음 발을 디딘 저의 경우는 고향이 실향민이 많이 살고 있던 수복 지역에서 성장해서 그 지역의 말투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50%이상 그들의 말들을 알아 듣지 못했는데 저의 경우는 90%이상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수월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내용들을 나누기에도 유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역사상 복음이 들어온 경로를 잠깐 살펴보면 1625년 예수회 신부에 의해 중국의 서안에서 네스토리안 비석이 발견되어 635년에서 845년까지 로마제국의 동교회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중국의 국내외 정치여파로 여러 핍박을 받으면서 중국의 기독교는 성장해 갔습니다. 1927년 중국의 동북지역인 만주에서 발견된 분묘 유

물중 11세기 초에 만들어진 십자가가 발견 된 것을 보면 당나라시대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의 복음이 성장된 모습을 역사적으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경우를 보면 1807년 중국의 남부지역 광저우에 영국 런던선교사 협회 소속인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동인도회사라는 무역회사를 통하여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였는데 이 회사는 아편을 사업의 수단으로 삼아 중국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중국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비복음적 요인이 됩니다.

중국교회사를 연구하고 있는 현지인 학자 중 한 분은 웬저우를 중국의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이는 한족 기독교 역사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경우 중국 선교 역사를 보면 조선족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연변 자치주에 속해 있는 연길을 많은 선교사들은 중국 복음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한국의 사업가와 선교사들은 연길로 조선족을 찾아 들어가 사업의 기반과 복음의 기반을 다지고 그곳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 북경 상해지역이나 운남성 등으로 이주를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변은 가장 큰 도시인 연길시와 돈화시 훈춘시 도문시 용정시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이 모여 조선족 자치주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곳 도시에 세계 여러 각지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중국의 종교법상 외국인은 현지교회나 기타장소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강의나 설교 및 집회인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을 어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 선 선교사들은 숨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늘 살고 있습니다. 이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 쌓이게 되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도 점점 얼굴이 어두워 가고 영이 말라가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전화를 도청하는 중국 공안당국의 놀림도 만만치 않고 주변의 선교사님이 어제 추방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이메일을 감청 당하다 보면 정말 죄인 인 듯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이나 자신과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입니다. 잠시라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사역에 치우침이 많아 지거나 기도생활시간이 작아질 경우 유능한 선교사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팀사역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기도모임이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현실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중국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모두가 완벽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 그 길을 따라 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들의 유형을 보면

1.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 선교목적으로 들어 왔다고 하지만 장사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 교회까지 속이고 선한 양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인척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 어 놓고 중국을 떠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일4:1)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거짓 선교사들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업의 순위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앞에 둡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익도 많이 남겨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것이 선교가 아니냐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 준 곳이 어디 어디 라고 사진을 꺼내어 보여 주곤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의 법도 때로는 어기며 나갑니다. 입으로는 늘 중국인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직원들의 작은 실수에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국 현지인의 영혼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업도 포기 할 수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하는 것인데 그들은 사업을 선택합니다.

2.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사역하는 가운데 바뀌는 유형입니다.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보낸 파송선교사, 어느교단 파송선교사 등의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선교지에 처음 파송을 받고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겪습니다.

길게는 3년 정도 까지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더 길게는 철수 하는 날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 가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 앉아버리면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처음 겨울 추위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시 영하 30도-35도까지 내려 갔는데 몸이 어지간 해서는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영상 28도까지 난방 공급을 해 주어서 실내 온도차이가 클 때는 60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감기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첫돌을 바로 지나고 겨울이 찾아 온 터라 많이 아팠습니다. 기침 감기, 열 감기 골고루 고생을 해서 중국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는데 한국에서 보지 못한 광경을 보고 저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주사실이 아파트 큰방 두 배 정도의 크기인데 그 안에 아이들이 꽉 차 있었고 모두다

링거주사를 앓아서 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

시간 이상을 그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링거주사를 맞을 정도이면 많이 아픈 환자들이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실 침대에 누워 뚝뚝 떨어지는 주사액을 보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히 주사를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은 누가 누가 먼저 맞는지 시합이라도 하는 양 줄줄이 빨래줄과 같은 철사에 주사액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항생제가 듬뿍 들어간 주사를 모두들 아무 생각 없이 맞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같았습니다. 주사 한방 진하게 맞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잡고 주사 놓기를 기다리는데 혈관을 찾는다고 아픈 아이의 팔을 마구 찔러 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감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를 이쪽 저쪽 생살을 찔러대는 아픔에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아이 머리에 주사를 놓았는데 그마저 우리 아이가 맞다가 손으로 잡아 뽑아버려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로 치료 해 달라고 하자며 병원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이들이 아플 때 마다 우리 가족은 병원보다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했고 섬기던 교회식구로부터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 후 9년이 지난 지난해 겨울에 목회 하던 교회의 한족아이 아빠가 저희 가족에게 어떤 보약을 아이들에게 먹여서 이 추운 겨울에도 감기가 걸리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학교의 경우도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연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길은 학비가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편이고 한국학교와 선교사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미국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처음에는 시골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 감으로 장래 학교에 대하여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시골 지역이지만 유치원은 있어서 그 나이에 맞게 유치원을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방바닥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어? 누가 가르쳤지? 저와 아내는 의아해 했습니다. 다른 조선족 형제들에게 물어보니 빙그레 웃으며 한족들 습관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날 일이구나. 아이들이 이상해 지겠네 하며 우리가족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한국학교가 있는 연길로 이사를 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사역과 일하는 것은 연길에서 1시간 30분 되는 거리를 매일 통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큰 결단을 했습니다. 연길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킨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친구들도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이었고 선생님들도 자원봉사자로 대부분 선교사님의 사모님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벽을 만들어 주어 자세히 살필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귀가 길에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해 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선교사역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는 처음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 일을 하다 보면 지역을 초월 해야 하는데 아이들

학교로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저희 가족은 다시 시골로 갔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대신 집에서 실컷 놀게 했습니다.
주님! 아이들도 사랑 하시죠?

물질의 연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실 거라는 확신과 내 자신이 욕심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충족하며 살겠다 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남들이 가진 것 갖고 싶고 남들이 먹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특히 다른 집 아이들이 가진 것을 우리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지요. 다행히 그 당시 중국은 아직 신용카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해 크게 빚질 일도 없었지만 이걸 견디지 못하면 선교사역을 위하여 들어온 현금에 손을 대는 실수를하게 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잠깐 빌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현금에 손대는 것 보다는 나은 편이지요. 빨리 갚아야지 하며 바로 갚고 하나님께 당시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되겠지만 끝내 갚지 못하고 영원히 써버리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위의 세가지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략 이 정도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실패한 선교의 자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는 좀 급합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겪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하는데 파송 시키자 마자 그 해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보낼 터이니 선교하고 있는 사역들을 당장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해서 선교사들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다른 선교사의 사역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파송 교회도 조금 여유롭게 선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장 최고급 베테랑 선교사를 보내시던지.

중국에 가짜만 득실득실 한 것은 아닙니다. 가짜는 아주 드물지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더욱 드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나간 훈적의 골이 너무 깊게 파여서 눈에 잘 띠입니다. 그래서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번의 경우는 진짜인데 가짜가 된 사례입니다.

꽤나 큰 교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북한이 가까운 지역에서 난민을 상대로 조선족 현지 목회자와 의료사역을 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을 돋고자 선교비가 매달 정해진 금액대로 오고 있었고 그 선교사님은 정확히 사역에 그 금액을 지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름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들어와 조선족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던 곳을 방문 하였고 큰 은혜를 받은 장로님은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선교비를 더 보낼 것이고 이곳의 사정을 내가

알았으니 사비라도 털어서 선교하는데 돋겠다
고 하고 가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약속한 장로님에게 아무 연
락도 없었고 선교사님은 그냥 하시는 말이었
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
느날 조선족 현지 목회자가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해 만났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장로님이 약속한 선교비를 왜
혼자만 사용하냐고 다짜고짜 물더니 당신은
가짜 선교사야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선교
비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회자는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 사역은 문

을 닫았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중국에 계신 모든 분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는 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영 분별을 잘 해야 하겠지요. 열심히 주님 앞
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사역자들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My Vision

나의 꿈

이은숙

초대방주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치위생사



어릴적 누구나 바라는 무언가는 있다.
내게도 꿈이 있었다. 어른이 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줄 믿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가와 세계를 여행하는 세계일주
여행가가 되겠다고 호기를 부렸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요구되고 모험심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크고 난 후에
중고등학생이 되어 성적표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

그런 꿈들은 어릴적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묻고 대답하는 성장중 통과의례
같은 것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그러나 성적표가 주는 파장은 의외로 커서
점수에 맞춰진 제한된 꿈만 꾸게 되었다.

점수에 맞춰서 적당히 꿈을 꾼다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말이다.

만약 두 달란트를 받았건 다섯 달란트를
받았건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
주는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점수에 맞춰서 전년도 미달이었던 과를
울면서 찾던 '나'를 기억한다.

지금 현재의 나는 연세 U 치과 치과위생사가
되기까지 네 개의 대학을 다녔고 다섯개 과를
거쳤다.(이쯤에서 다들 웃으시리라!)

배재대 불문과, 대전보건 치기공과, 방통대
국문과와 교육학과, 영동대 치위생학과

예전에는 시간을 낭비해서 밭을 동동 구를
정도로 안타깝고 아깝게 여겼는데 낭비한
시간 조차 '나'를 만들고 다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불어를 조금 좋아하고 치과기공 일을
했으며, 국어나 역사를 좋아하는 치과위생사는
아직은 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의 나는 다시 꿈을 꾼다.

치과에 오기 싫어하는 환자에게 마음을
조금이나마 유쾌하게 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나부터도 즐겁고 싶고, 대학원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공부도 더 해서 대학 강단에도 서고 싶고,
선교지에서 의료선교의 꿈도 실천 하고 싶다.

또 자선 사업가는 아니더라도 이웃을
구제하는 삶을 살며, 세계 각 나라에 친구를
만드는 꿈을 꾼다.

꿈을 꾸고 꿈꾸기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간증문

저의 이름은 루슬란 입니다!

루슬란

디아스포라신학교 신학생

키르기즈스탄인



먼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저의 이름은 루슬란입니다. 저는 중앙 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에서 왔습니다.

저는 회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2005년에 친한 친구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저에게는 더 큰 기쁜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4개월 후 저는 마태복음 6장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1년동안 학업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서 사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과의 비전의 방향이 맞지 않았던 관계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역 동안의 여러가지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기 위해 한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회복을 위한 통로는 키르기즈스탄을 떠나는 길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을 떠나 러시아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를 통해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2007년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00대학의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생활을 하였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중퇴를 하고 취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입국 입국할 때부터 취업하는 동안에 한국 교회예배 참석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양인은 왜 믿음의 길을 떠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예수께서 시몬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루슬란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시 1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네 양을 먹이라. 네 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소명을 확인하였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당세에 몇몇 키르기즈스탄 형제들과 함께 소모임을 가지면서 키르기즈스탄 교회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외국인 신학교 재학중인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여전도사님과의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소개로 김영제 목사님(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선교중앙교회 담임, 디아스포라 외국인 신학교장)을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 주셨으며 신학공부를 제안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외국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김영제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키르기즈스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또한 키르기즈스탄 교회 사역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깨어 있는 바른 목회자(벧전 5:8)가 되는 일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으면 선교중앙교회와 디아스포라 외국인 신학교 또한 키르기즈스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간증문을 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연세 U치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Universal Care 치과팀은 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월드와이드 의료선교회 주관의 고창 아웃리치에 참가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 나사렛교회'에서 치과팀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깨달음을 주셨고, 농촌교회와 동역하게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의 첫 아웃리치

-전북 고창을 다녀와서-

홍지혜

복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 U 치과 치위생사



전북 고창으로 떠나는 하루, 그 날의 모든 일들은 나에겐 처음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다른 이들을 위해 먼 길 버스를 타고 그저 봉사가 아닌 선교라는 목적으로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일. 언제나 나에게는 막연한 일들이었다. 일년 전의 나였다면 이렇게 흔쾌히 함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별히 선교에 뜻을 두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처음 연세 U 치과의 식구가 되었을 때에도 여기에서 꿈꾸는 일들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병원 안에서 선교에 비전을 가지신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만날 기회들을 주시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 주셨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긴 시간을 통해 내게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창으로 가는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들고 선교를 위해 버스에 오르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선교를 떠나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청년의 때에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긴 내 예상 밖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 많고 나는 너무 작은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곳으로 보내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고창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다. 그 곳에 사시는 분들보다 그 분들을 섬기려 온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지만 그래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대 되는 것들이 더 많았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규모가 크고 청년들도 많은 편에 속한다. 한마디로 편안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감사한 곳이다. 고창 나사렛 교회는 정반대다. 예배당이 따뜻하지도 않고 힘써 일할 청년들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배드린 교회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였다. 진료도 마찬가지였다. 부족한 체어, 재료, 약품들.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더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배웠다. 우리가 부족 할 수록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셨다. 예배당은 작고 추웠지만 드려지는 예배는

진짜였고, 깊은 예배였다. 항상 불러왔던 찬양이 은혜가 되어 지고 흔하게 들어오는 말씀도 달리 들렸다. 진료 역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안타까웠지만 나누는 마음들과 보람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와는 다른 기쁨이었다. 하나님은 크고 따뜻한, 빵빵한 소리로 찬양이 올려지는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함께 계셨다. 치과, 이침, 한방, 식당, 사물놀이, 접수, 사진 등..자신이 감당하는 역할의 크고 작은 일을 떠나 함께 할 수 있음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다른 은혜를 맛보았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 좋은 날씨, 경치, 익숙함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무언가 나의 삶 가운데 한발 더 하나님과 함께 내딛은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비전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바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돌아오길, 또한 우리가 나의 앞날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바라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서 도구로 사용 되어지는 것이 선교의 의미라면 그 누구도 선교의 비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선교의 비전이 없어 라고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던 것들을 내가 다 느끼고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일일이 돌보셨다는 것,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한 어르신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난다 “ 잇몸도 아프고 이도 다 빠지고 아파. 인생에는 춘하추동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난 지금 겨울이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이 아팠다. 어르신께 육의 겨울대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선교지에서 1

선교지에서의 첫 번째 유아 세례식을 가지면서....



김우섭 목사

러시아 로스토프 나 도누 선교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년에도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 소식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감격시킬 것이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구유에 누우심은 죄악의 구유에 누워 퉁군 우리를 하늘 왕자가 되게하기 위함이다. 아기 예수 누워계신 초라한 막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음은 하늘 영광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나팔소리이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은 죄로 인해 평화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에 하늘 평화가 깃들이게 되었다는 복음이다.

아기 예수께서 땅위에서 행하신 첫 공식 행사는 탄생 8 일 만에 행해진 할례였다. 예수님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언약의 씨'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인치는 일이었다.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성역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선포이며, 죄사함의 세례를 성취키 위한 메시야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죄인을 위해 받으셔야 할 더 중요한 세례인 쓰디쓴 십자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눅 12:50). 요단강 물은 예수님의 피인 것이다.

얼마 전에 이곳 러시아 남부 지역인 '로스토프 나 도누'에서 첫 번째 유아 세례 예식을 치뤘다. 이곳에 온지 3 년을 지내고 나서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는 이 곳 오순절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쿠르바노프'목사의 손자다. 할아버지가 목사시기에 친히 손자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셔도 될 터인데, 나에게 부탁을 해왔다. 이유가 있다. 러시아 오순절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금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러시아 개신교회가 동일하다. 물론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제외하고 말이다. 목사님은 본인의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풀게 되었을 때, 교단 내에 야기될 문제점을 걱정 하였기에 나에게 부탁을 해 온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유아 세례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 유아 세례식 광경을 보기로 원했던 것이다.

유아 세례식 전 날 나는 장시간에 걸쳐 글씨를 새기고 부착하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 주일 오후 목사님 부부와 아들 부부, 그리고 유아 세례 대상자 '루슬란'이 도착하였다. 목사님과 모두의 얼굴이 밝았다. 곧 이어 유아세례식이 진행되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상기된 얼굴로 예배 좌석에 앉아 설교를 경청하였으며, 유아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주시하였다. 특히 루슬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고 나자 목사님의 얼굴에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하였다. 사모님 또한 세례 예식이 끝난 후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전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유아 세례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기뻤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 차를 마시며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 또한 무척 기뻤다. 실은 이전 사역지에서도 여러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유아 세례를 통하여 기쁨을 누려보지는 못했다. 금번 유아세례를 통하여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보다 더 확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더불어 마음 한편에 남아 있는 안타까움은 이곳의 많은 현지 교회들이 유아 세례의 중요성과 그 은택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유아 세례 문제는 오래도록 교회사 안에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은 성인 세례만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신자의 자녀들은 성장하여 스스로 신앙고백에 이르기까지 불확실한 구원에 대한 기대로 마치 가느다란 실을 불들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신자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를지 아니면 유기된 자로 남을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결론 내리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진실로 신자들의 자녀들에 대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답을 구약의 언약신앙과 할례에서 찾게 된다. 언약신앙은 아브라함에게서 시행된다.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 전개되다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창 22:18)는 약속을 주신다. 이 약속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을 축복하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고였으며(갈 3:16),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므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언약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약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언약 아래 있다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신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시인 것이다.

이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다. 진실한 거듭난 신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놓여 있다. 즉 하나님께서 부모나, 부모 중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언약 아래 놓인 자이며, 그들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은혜언약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신자의 자녀인 유아에게 이 약속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신자의 자녀일지라도 그가 성장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그의 구원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또한 어린 아이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소년이나 청소년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고 의미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은 친히 작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셨다. 이는 어린 아이들이 결코 구원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불쌍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없다. 비록 말을 못하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 바빙크는 '개혁신학자들은 유아세례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고 하며, 그것은 신자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계약이라고 한다. 성년이나 유아가 다 세례를 받음이 정당한

것은 반드시 종생이나 신앙이나 회개를 이유로 함이 아니고 오직 은혜 계약 때문이다. 유아세례의 근거로서 이 이상 더 깊고 튼튼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바빙크의 이야기처럼 유아 세례는 성인들의 세례의 근거가 되는 종생이나 회개나 눈에 보이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언약이다. 그리고 비록 어린 아이가 성인들처럼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종생하지 못했다고 확증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배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 왔을 때 복종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다'(눅 1:44)고 하였다. 세례 요한은 배속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유아라고 하여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다고 말하면 너무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일이 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으면 한다. 그래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할 수 있다. 이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분명한 의식 아래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은 아무 의식이 없는 가운데 8 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신자의 자녀들 또한 이삭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린 유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다.

선교지 현지인 교회들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아 세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유아세례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부모 신자들은 다윗과 같이 내가 무엇이관대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큰 은총을 베푸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은혜가 큰 만큼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어릴 때부터 기도에 동참시키며, 또 말씀으로

가르치며, 경건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함이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양육이 없다면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댓가가 크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교지에서 II

밀알의 비전

배성호 목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요한복음 12:23~2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선교사로서 8 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 보았다. 그 질문의 대답을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어둠의 땅 한국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긴 항해를 하였다가 혹은 목적지인 한국에 도착하여 목적한 바 일들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다.

아마도 그 분들의 비전은 한결 같이 밀알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밀알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 그 비전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6~11 절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찾는 것은 우리 각자의 뜻이다.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선교지의 선교 대상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거기에는 위협이 있다. 거기에는 목숨의 위협이 있다.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애환과 슬픔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삶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의 눈에는 앉은뱅이가 보인다. 소경도 보이고 문동병자도 보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보인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표준이 되어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아픔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짙주림 속에, 신음 속에 그리고 기쁨 속에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사람들의 삶과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였다. 선교사들의 삶, 그것은 우리의 선교 대상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밀알의 비전의 첫 걸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밀알의 비전은 사람과 같이 된 후 곧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인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이었다. 한국 초대교회의 탄생은 어두움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의 산물이다. 그들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았고 그들이 땅에 깊이 묻힌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 선교사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8년 동안의 사역을 뒤돌아 보면 시행착오의 연속 뿐이었다. 가는 길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선교였다. 선교사가 왜 선교지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교사나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이나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나의 선교지 아프리카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와 함께 씻기기 어려운 상처가 있다. 유럽의 식민지,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여 철저히 노예화 정책을 펼쳐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정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아프리카인들을 철저히 무능력하게 하는 정책, 노예화 정책이었다. 거저 주는 것에 길들여진 아프리카인들은 무능해졌다.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서서히 그 깊은 무능에서 깨어난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투쟁하며 독립하기 시작하였고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될 무렵 일본이 그리고 중국이 그들을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이다. 아프리카 대륙을 품은 선교사로서 이러한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그 아픔을 나눌 수 없다면 선교사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고 만다.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체험해야 한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야 한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듯이 사람들에게 육체의 가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8년의 사역을 뒤돌아 보며 갖게 되는 결론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는 것, 곧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게 남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해답은 이미 마태복음 28:18~20 절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다.

지키게 한다는 말 속에는 실천적 삶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많은 육체의 연습이 뛄따라야 한다. 지킨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 없는 육체의 노력 곧 인내와 절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위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평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큰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나눔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 그리고 나의 살과 피가 담긴 나눔이다. 여기에서 종종 우리의 오해가 있다.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과 나눔의 기준은 내 몸과 같아이다. 자신의 몸을 천시하는 자가 이웃과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천시하는 자가 이웃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자신과 가족에게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줄 아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한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의미가 있다. 이것은 모두가 사는 법칙이다.

밀알의 비전은 선교의 본질로, 그리고 성경적 선교로 돌아가는 비전이다. 그들이 가진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가진 고통 속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품어야 할 그들의 영혼의 참 모습이 보인다. 그것이 보일 때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비전이다.

선교?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보람과 기쁨이 있었나?

삶에 도전이 되었나?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나?

한 영혼을 품었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은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을 품은 배성호 선교사 배상

선교지에서 III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태화 목사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선교사



한국교회는 90년도 이후 제 3국을 향한 실질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공산권 지역이었던 나라들로 한국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공산권이었던 지역은 한국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다. 그 이후 중국과 몽골,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다니면서 실질적인 선교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냥 꿈처럼 생각했던 선교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구체화 되었다. 하나님의 세계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21세기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단기선교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 준 창이 되었다.

1.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감당 했던 사역들

선교사는 대부분 적지에서 홀로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장기 선교사를 위로하는 일이었다. 선교사를 위로하기 위해 선

교지에 맞는 선물을 준비 했고 선교사에게 힘과 용기와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 했다. 짧은 시간의 만남들이었지만 그간의 아픔들과 사역의 어려움 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선교현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 끝이 없는 이야기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의 아픔을 들어 주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선교지는 사역에 필요한 물자가 특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각 선교지에 맞는 물자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다. 물자 지원만으로도 단기 선교 많은 의미를 가진다. 미리 조사를 해서 물품을 지원한다면 선교사 역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단기 선교의 장점은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다는 점이다. 적지에 혼자 전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일년을 해도 몇 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만 많은 인원이 전도에 집중하고 또 다채

로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영적인 추수가 각 선교지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또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한국 안에서는 상대 평가를 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이 약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계교회에 나가 보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된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셨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과 문화가 세계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감을 높여 주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선교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했고 어떤 것이 선교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지, 선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영적인 평화를 누리면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 때문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과 선교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산권 지역이었던 나라들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하셨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충격으로 다가 왔다. 선교는 막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주님의 용사들이 초대 교회와 같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처절한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가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만약 나에게 단기 선교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선교사의 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팀원 가슴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실질적인 영적 전쟁터의 모습이 그려지길 바라며 많은 팀원들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수 멋진 단기 선교가 되길 기대한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정태화 선교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 로스톱 나 다누 김우섭선교사



1. 추운 날씨에 걸인들이 따뜻한 게르집으로 입주하여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2. 몽골에 유행하는 눈이 충혈되는 눈감기와 독감, 몸살로부터 사람들이 보호되도록
3. 교회의 성령충만과 부흥
4. 새로 시작된 쇼브링 파브릭 월드와이드 교회가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 성령의 지혜를 품은 일꾼들을 일으키소서
2.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선교사 후보생들을 일으키소서
3. 학교의 설립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돋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인가가 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소서
4. 필요한 모든 재정을 남아공 정부, 선교단체, 한국교회 및 선교단체를 통해서 채워 주시고, 후원자들을 일으키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후원교회와 이사진을 주옵소서
2. 좋은 학생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교수진이 든든하게 하옵소서.
3. 학생들의 건강과 직장, 재정문제, 두고 온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4. 졸업한 학생들을 후원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5. 교수님들과 후원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1. 언어의 진보가 있기를
2. 캄보디아 물축제 사고를 통해 복음을 아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3. 한인사역, 찬양사역, 교도소 사역등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
4. 1년간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어 질 수 있도록

||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



||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1. 복음과 선교 때문에 찾아온 약함을 이기고 바울처럼 약함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수 있는 강함이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 올 여름 선교센터가 더 큰 자리로 이전했는데 수리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 되고 선교센터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센터가 될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 4곳에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개척된 교회 리더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센터에 모여서 리더 훈련이 시작되도록..

-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할수 있고 또한
쉴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 단기팀 또는 손님들이 머물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의 역할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3. 저의 자베트 교회 선교 비전중에 첫번째
비전이 교회 개척사역입니다. 지금 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5번째 지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표인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울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0 겨울호 출간

2010년도 네번 째 "Universal Care" 선교회
지 겨울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동역자에
게 전하실 목적으로 회지가 필요하신 분들
은 편집부로 연락 바랍니다.

2. 몽골 장로회 연합 신학교 신학생 장학금 후원 계좌 안내

신한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3. 2010 고창 아웃리치

2010년 11월 20일(토), 월드와이드
의료선교회 주관 고창 아웃리치에 Universal
Care member 들이 치과 진료팀 및 여러
사역분야에 참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가자 : 정진호, 최혜원, 정세연, 최길상,
천윤미, 이은숙, 홍지혜, 신보균, 박성규

5. 선교사동정

1) 남아프리카 공화국 배성호 선교사께서
교육선교 컨퍼런스 참가 및 남아공 현지 학교
설립을 위해 11월 초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하시다가 11월 30일 다시 선교지로
돌아 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Universal Care 토요기도회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on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토요일 아침 7시
연세 U 치과에서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제7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0년 12월 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3층 요셉홀

강사 : 황필남 목사 (본회 상임고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최혜원,

기도제목

1.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4.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5. 2011 년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 는 2009년 6월 23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 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돋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 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와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에르덴 호의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적 관계의 끈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 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 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 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긍휼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단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 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 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Support 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 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 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제7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홍성훈목사

강사 : 황필남 목사

(몽골 선교사/ 본회 상임고문)

축도 : 황영석 목사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3층 요셉홀

일시 : 2010년 12월 7일(화) 오후 7시 30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송찬송 선교사 (캄보디아)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에르덴 호익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